

2019년도 제2회 세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 일 시 : 2019년 8월 19일(월) 11:00 ~ 12:30
- 장 소 : 의회 3층 의정실
- 참석자 : 17명
 - 출석위원 이재현 손현옥 이경순 백운석 도현택 이용석 이승표
 - 출석공무원 선정호 홍정희 정용운 이진영 이수진
 - 전문위원 정진기 오두혁
 - 기록공무원 박소연 서선정 이지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심사
4.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심사

(11시03분 개의)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운영지원담당 000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세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7월 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을 7명에서 9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심사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기한을 출국 40일 전까지로 확대하고 심사를 거친 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정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에 따라 000 위원님과 000 위원님께서 추가로 위촉되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000 위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000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선출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세요? 000 위원장입니다.

삼복더위를 잘 이겨 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고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항상 의회 의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도와주신 덕분에 의회에서 큰 무리 없이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공무국외출장심사가 변화가 많이 있어서 저도 잠깐만 한 5분 이내에 위원장님 선출하고 일반위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잠깐 위원장 선출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로 되신 위원장님께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제1회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간위원 중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제외시키고 민간위원님들 중에서 선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00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행 000 위원님.

○위원 여러 가지 경험이나 경력으로 출중하신 000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000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분을 거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한동네 사람, 더구나 지역구 의원이신데 그게 아니라 저는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000위원님이 맡아 주시면, 그동안에 여기 심사위원도 계속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저는 뭐…….

○위원장직무대행 왜냐하면 연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할 때 000씨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령을 봐서 추천해 드리는 건데 두 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두 분을 여기에서 거수를 할 수도 없고…….

○위원 그냥 000위원님께서 하시지요.

○위원 아니요.

○위원장직무대행 안 그러면 000위원님 말씀…….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경륜이나 여러 면을 고려하면 000위원님께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000위원님께서 추천하신 000위원님이 고사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할 때, 000위원님만 남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위원장님이 부위원장님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일단은 그럼 위원장님은 000위원님으로 위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000위원님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는 소임을 다했으므로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000위원님 위원장직으로 와 주시고요.

다음은 오늘 새로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는 후에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직이라는 게 상당히 경륜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풍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연령이 좀 많다는 것 때문에 제가 위원장이 된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가 상당히 여러모로 책임도 무겁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회의하는 내용이 의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심사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회가 국외출장심사위원회로서 심사를 하는 데 충실히 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선서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세종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12분)

○위원장 다음은 세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을 특별히 민간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없으시지요?

○주무관 민간으로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무원이나 의회에서는 할 수 없으신가요?

○주무관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제가 이것은 000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000 위원님께서 000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셨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000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한 말씀해 주시지요.

○ 위원 영접결에 부족하고 경험도 많이 없는데 이런 자리를 맡게 돼서 감사드리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산업건설위원회 국외출장계획 심사

(11시14분)

○위원장 다음은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국외출장계획 심사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진행은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후에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자리에 배부해 주신 심사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어 국외활동의 필요성과 출장자의 적합성 또 대상 국가와 그 기관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해당 출장 상임위 공무심의회는 해당 소관 상임위원인 의원은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참고로 여기 보면 심사 시에 금번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000 위원님과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000 위원님께서서는 해당 안건 심사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만약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 할 때는 산건위원이신 000 위원님이 같이 회의에 참석을 하시는지 아니면 잠깐 나가 계시는지,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요.

그 방법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관련 법상으로는 나가 계시는 걸로, 결격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제척사유로.

○위원 그래야 자유롭게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요, 교안위랑 산건위 두 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원 산건위를 할 때는 제가 나가고.

○위원 네, 교안위 할 때는 제가 나가 있는 방식으로.

○위원 나가셨다가 나중에 심사할 때는 같이 다 들어와서…….

○위원 심사할 때도 참여…….

○주무관 의견서 작성하실 때는 같이 들어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위원 의견서 작성할 때만, 자기 소관만 안 하고 하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퇴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처음이다 보니까 좀 미흡한데요, 죄송스럽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000 주무관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실 000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공무국외활동의 목적입니다.

세종시는 2012년 7월 출범 이후로 지속적인 개발이 이어져 왔지만, 현재 지역경제 불황 등 여러 가지 경제 현안에 직면해 있으며, 2021년 입주를 목표로 5생활권에 스마트시티 조성이라는 국가적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에 대한 걱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7개의 아랍토후국으로 이루어진 아랍에미리트 연합 중 경제의 양대 축인 두바이 및 아부다비 국가를 방문하여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도시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스마트시티 조성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세종시 정책 추진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활동 일정은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4박 6일간으로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무역 및 글로벌 비즈니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두바이 코트라를 방문하여 전체적으로 아랍에미리트의 경제와 무역 현황 및 한국과의 교역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두바이 신도시 개발 정책을 담당하는 관공서인 두바이 퓨처파운데이션, 해안 도시인 두바이의 지역 강점을 살린 두바이 수변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창조적으로 도시 랜드마크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 나킬사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두바이가 세계 최고의 의료 허브가 되기 위하여 고품질·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와 의료 관광을 제공하는 헬스케어시티를 조성 중으로 이에 대한 모든 설립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두바이헬스케어시티위원회를 공식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부다비에서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인 마스다르시티를 방문하여, 우리 시 5생활권에 조성될 스마트시티의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무국외활동을 통해 신도시 개발 전략 및 지역 강점을 살린 정책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접목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부다비에서 조성 중인 스마트시티 견학을 통한 세종시 스마트시티 추진 계획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두바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학습하여 세종시 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1인당 259만 원에 해당하는 경비 산출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세종특별자치

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 내에서 산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000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궁금한 게, 안건 1하고 2하고 날짜가 달라서 환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환율 적용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건위 환율은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할 때 당시에, 그때 당시 하나은행 외환 고시 때 매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지금 올라온 안건이 보면 출장 기간이 똑같거든요,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교육안전위원회가. 출장 일자는 똑같은데 환율이 각각 달라요?

○산건위 산업건설위원회는 2019년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4박 6일 일정이고요.

교육안전위원회는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5박 7일 일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별로 계획을 지금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언제 날짜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 위원 3일 차이 나는데.

○ 간사 3일 차, 8월 2일, 7월 29일.

○ 위원 산건위는 7월 29일이고 교안위가 8월 2일 기준인데.

○ 위원 출발하는 날짜는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 위원 네.

○ 산건위 환율을 예상해서 적용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만들 때 당시에 외환 고시로 올라오는 매매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실지급하는 날짜는 언제입니까?

○ 산건위 실지급은 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저희한테 통보 공문이 오면 저희가 산정한…… 지금 이 티켓은 저희가 발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일비, 식비, 호텔비가 다르잖아요?

환율에 따라서,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는 건가요?

○산건위 항공 운임이랑 준비금은 저희가 실비로 지급하고 있고요.

숙박비랑 일비는 직급별 상한액의 할인 적립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공무원 여비 규정에 나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제1호제라호…….

○위원 그것은 등급에 따라 다른 거고 환율 적용하는 날짜를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산건위 실장님, 환율을 적용한 날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출장 기간이 동일하면 같은 의회에서 가기 때문에 정산의 개념이 아니고 계획의 개념이라고 하면 일자를 동일하게 해도, 만약에 정산의 개념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위원회 간에 합의해서 결제일인지 심의위원회 통과일인지 아니면 계획 완료 일인지 이것을 정해서 위원회가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건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관련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 그렇게 하겠습니다.

(000위원 거수)

○위원장 000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000 위원입니다.

지금 스마트시티를 보러 가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스마트시티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도 보고 오신다고 했는데 장소를 두바이로 정하신 구체적인 이유와 가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오고 싶으신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상황하고 아랍에미리트하고는 기후 조건이라든지 환경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산건위 세종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개념도 어떤 한 분야만 걸쳐 있지는 않습니다.

보건·교통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바이에 가서 보고 오려는 것은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도 보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관련된 기관도 볼 예정이고요.

컨셉 자체는 지금 여러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두바이 자체가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선도 도시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두바이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강점도 한번 보고, 만약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그 부분들은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할 계획입니다.

○ 위원 그럼 두바이하고 세종하고 어떤 도시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여건이라든지 유사한 측면이 있나요?

○ 산건위 환경적으로는 유사한 면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시티의 개념 자체가 어떤 한 분야에만 걸치지 않고 여러 분야에 걸친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보건·의료 문제, 여러 문제에 걸쳐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 관련해서 두바이가 잘하고 있는 부분 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가서 보고 저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반성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한 가지만, 감사님이 아실 것 같은데 위원님들은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가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 오늘 심사 대상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수행하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런 별도의 논의를 하게 되어 있지만 계획상으로 어차피 다 같이 가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6명이 가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사 일단 뒤에 각 역할이 나와 있는데요.

○위원 직원.

○간사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실에 있는 분들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같이 보좌를 하게 되었고요.

의정담당관실 직원들은 속기 역할을 했던 직원들이 그동안에 해외 경험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그쪽의 의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견학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그쪽 의회를 방문하는 건 아니시지요?

○간사 예, 방문은 않지만 그쪽의 그런…….

○산건위 저희 직원이 산건위 같은 경우는 6명이 수행합니다.

저희 산건위 전문위원실의 3명이 가고요.

그다음에 입법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의 정책 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갈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1명이 갑니다.

운영위 같은 경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관 부처를 불문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 직원도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두바이를 한번 가서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인원을 정했습니다.

○위원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 산건위 현 소속 위원이 총 몇 명이에요?

○산건위 여섯 분이십니다.

○위원 전원이 다 가시는 거예요?

○산건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그러면 의회의 시스템은 잘 모르는데 매년 전원이 다 한번씩 공무국외출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까?

○산건위 꼭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알겠습니다.

(000 위원 거수)

○위원장 000 위원님.

○위원 공무원 동행 출장에 대해서는 일견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이 잘못 와전되어서 알

려질 경우에는 비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호의적 차원에서, 보상 차원에서 가기 보다는 가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그분들의 연수 기회도 제공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과제를 조금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두바이 같은 경우에 투자가 제대로 안 돼서 도시 건립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송도 신도시를 만들 때 두바이의 모델을 많이 벤치마킹했는데 그래서 가기 전에 송도 쪽하고 접촉해서 어떤 벤치마킹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현재 벤치마킹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도시 건설 계획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부작용, 개선 방안들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본인들의 전문성·역량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형식의 일정 정도의 역할과 임무를 분명하게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었겠습니까만 만약에 계획이 조금 보충될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점검해서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건위** 특정 직원 한 명한테 모든 과제를 맡길 수는 없는데 기관 자체가 5개 기관을 방문하다 보니까 직원별로 기관이라든지 미션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최소한 특정 한 개 기관에 대해서는 뭔가 과제를 고민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000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의원님들하고 또 전문위원분들하고 같이 가시다 보면 여섯 분, 여섯 분이거든요.

사실은 외부에서 보면 “보상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고, 교육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시 집행부, 교육청하고 같이 가시는 걸로 돼 있는데 오히려 지금 두바이 같은 경우 아랍에미리트 스마트 시티 조성이라든가 도시개발 관련해서 가신다면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하고 한두 분 같이 가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집행부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000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고 000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건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000 위원 거수)

○**위원장** 000 위원님.

○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이 조례가 개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위원회가 권한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안을 부결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통과의례인 위원회인지?

○ **위원** 형식적인 통과의례 역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간도 40일 전후로 이렇게 늘려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탄없이 하시면 됩니다.

○ **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번에 변호사협회에서 자리가 대신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예전부터 말이 많았었고요.

원래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사실은 불편한 자리는 맞아요, 이 자리가.

그런데 불편한 자리에 조례로 만들어서 민간 위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섞여서,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면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왕 왔으면 엄격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 별표를 한 번씩 쪽 보시면 이걸 다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 6명 전원이 가야만 되는지 그리고 매년 가야만 되는지 그리고 공무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검토가 된 것인지 아니면 매년 해 왔기 때문에 금년도 하는 것인지, 혹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전에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여러, 밖에서 어떤 비난이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 만약에 이거에서 통과될 경우에 향후에 언론이든 어디에서 이거에 대해서 비난받을 소지는 없는지 그거에 대한 검토가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비난이 있을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꼭 그런 비난을 무릅쓰고까지 이런 국외출장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산건위** 말씀하신 거는 일부 지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준비를 해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출장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내지는 가는 거 자체에 대한 회의 내지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의원님들이 다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도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다 가고 안 가고 문제,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저는 직원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요.

○**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까요.

사실 000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처음으로 심사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의회에 올라가기 때문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우리가 회의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이게 첫 회의지만, 첫 심사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관련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같이 가시는, 함께하시는 관련 전문위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같이 고민하셔서 논의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로부터 상당히 뭇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상당히 고민스러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000 위원 거수)

000 위원님.

○ **위원** 제가 뵈기에, 저는 학교에서 있다가 교육청으로 와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으로 목격하는데 대부분 경륜이 높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초선 또는 재선 정도의 역사가 짧은 의원님들이시고 그래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된 것보다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보고 배워서 우리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시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는 것보다 공무원과 동행해서 단체로 가서 가는 도중에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수행원들이 더 많고 그다음에 수행원들은 단순히 참가만 하는 그동안의 관행이 있었다면 그런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저는 그냥 1년에 한번 정도 나가서 보시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거수)

○**위원장** 네, 위원님.

○**위원** 저도 000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의원 개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역량 강화 측면에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심의를 하는 것은, 더군다나 기간이 40일 전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개선시킬 것은 개선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개선시켜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적용시켜서 고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나마 확보됐기 때문에 좋은 의견들 주셔서, 그러니까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아까 000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의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000 위원님 의견 좀 내 주시지요.

○ **위원** 이번에는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위원장** 사실은 위원님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회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조레가 개정된 이후에 위원장도 민간으로 받고 부위원장도 민간으로 받고 그런 부분들은 이 위원회가 제대로 된 위원회로 가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자리가 무거운 자리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진지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공무원들 여섯 분 그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 공무원들 여섯 분이 다 운영위원회 내지는 전문위원님들하고 의회 쪽에 관계되는 분인데 사실은 집행부가 일부 끼고 여기에서 일부 빠져서 다음에 가는 방안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약간 바뀌어서 갈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고

민해 보시는 게 어떤지 생각이 됩니다.

4년 동안에 몇 번 가지지요?

○주무관 가실 수 있는 거요?

예산 범위에 따라 매년, 보통 한 번…….

○위원장 매년 한 번씩?

○주무관 매년 한 번,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 위원 한 세 번 정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세 번 정도?

○ 위원 마지막에는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임기 끝나는 해라서.

○위원장 그럼 보통 4년이면 한 세 번 정도는 해외를 나가신다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이해를 하면?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공무원들 중 일부는, 이쪽 의회에 오신 지 오래됐다면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오신 분 같은 경우는 다음 차수에 가서도 무방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시지요.

○간사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네.

○ 위원 네.

○간사 000 감사입니다.

제가 와 보니까 속기 직원이나 이런 직원들은 5년, 6년 됐어도 거의 해외연수에 참가를 못 했습니다.

가장 위원님들 지근거리에서 고생을 많이, 지금 속기 직원이 타자를 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속기 직원 한 분을 의원님들이 요청하셔서 가게 됐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입법주무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들어왔긴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가장 지근거리에서 입법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의원님들께서 진행하셨고, 전문위원실에 있는 주무관도 위원님들은 당연하다고 다 이해하실 겁니다.

가장 지근거리에서 하고 있고 더구나 이 계획을 수립했고 마지막에, 나중에 전체 모든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하리라 보고 그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 동행 직원, 동행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 간사 사실은 의원님들만 저희가 하는 거지요.

○ **위원** 의원님들의 국외여행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출장여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 **간사** 공무원 출장여비는 공무원 출장여비에서 별도로 가고 있고요.

의원님은 의원님 공통경비에서 별도로 회의가…….

○ **위원** 의회사무처에서 여기 동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의 국외공무여행 심사를 해야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 **간사**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벌써…….

○ **위원** 교육청도 담당 공무원 2명이 가면 교육청 내의 국외공무심사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사실은 의원님들 것만 오늘 말씀을 나누면 되는 건데 첫 회이고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린 겁니다.

○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가는 직원 분들은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사전에…….

○ **위원** 심사를 하지요.

○ **위원** 아니, 사전심사 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산건위** 아닙니다.

직원들에 대한 건 심의하는 게 맞고요.

다만 지금…….

○ **간사** 16일에 했는데.

22일인가?

22일에 할 예정입니다.

○ **산건위**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안 거치고 명단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네요?

○ **산건위** 기본적으로 계획서 심의를 받을 때 작성한 계획서에 대해서 집행부에 있는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라든지 이분들한테 협조를 일단 받았고 다만 별도 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직원들에 대한 논의를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 **위원** 그런데 충분히 의견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산건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 **간사** 집행부에 저희가 이미 이걸 보냈고요.

집행부에서 22일에 심의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전부 다 우리들이 반영해서 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쪽에서는 큰 그림은 의원님들이 먼저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 결과에 따라서 22일에 시청에서 또 교육청에서 직원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 **위원장** 22일이면 사실은 저희들 이후인데 관련 시나 교육청에서는 심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나 시나, 시나 교육청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걸 지켜보고 결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 **위원** 부담 갖지 말고 하시라고…….

○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출장자 6명 의원님들이 모두 다 가기를 동의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는 다 받으신 거예요, 다 가신다는?

○ **산견위** 네, 의사는 받고 추진한 겁니다.

○ **위원** 전원이 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 **산견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분 중에 일부는 두바이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 **산견위** 두바이라는 목적지를 떠나서 어느 나라를 정하든 간에 요즘은 출장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두바이를 가신 의원님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판단의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 **위원**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인터넷에 다 공개된다고 하니까

수집하려는 목적 아니면 자료나 이런 것이 인터넷이나 다른 기타 문헌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 **산견위**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 워낙 인터넷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확보 가능합니다.

다만 두바이라는 나라 자체가 2000년대 초·중반에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중앙부처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조회를 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협업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또 거기와 관련된 데이터, 연구와 관련된 자료는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 목적으로 간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두바이라는 나라를 가서 직접 보고 그다음에 인터넷상으로 물론 자료가 찾아지겠지만 그 외에 볼 수 있고 경험하고 물어볼 수 있는 것들 확인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 이걸 다 공공예산이잖아요.

예산을 쓰는 경제성 문제, 효율성 문제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까지……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필요한데 이런 경비를 들여서까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아니면 이득을 비교해 보면 최소한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들고, 매년 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럼 기존에 매년 해 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효과가 있었

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렇다면 지금 계속 불어나는……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고 하시는데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지적을 받는 거거든요.

굳이 세종시도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매년 가는 것이다.’ ‘통과의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해 정도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제적 효과, ‘이 비용을 들여서까지 그런 효과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한 해 정도는 거르고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일부는 ‘굳이 다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 보면 가고 나서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비난이나 비판에 대해서 일부는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의회 차원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다른 지자체 시의회와 다르게 변화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거든요.

○ **산견위**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세종시 차원에서 갔던 연수가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은 없었고요.

다만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물론 인터넷상으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직접 보고 경험한 거하고 그다음에 그걸 문헌상으로 확인한 거는 또 별개의 문제고요.

아마 이 문제는 저희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잘 보고, 갔다 온 다음에 얼마나 정책에 잘 활용하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심사의견서 작성 때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국외출장 계획 설명도 들어야 돼서 우선 교육안전위원회 심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4.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심사

(11시51분)

○ **위원장** 그러면 제4항 교육안전위원회 국외출장 계획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후에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이신 000 위원님께서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고요.

(000 위원 퇴장)

교육안전위원회 000 주무관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안위** 안녕하세요.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000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공무국외활동의 목적입니다.

우리 시에는 세종하이텍고, 세종여고 등 2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글로벌 직업교육·훈련 및 교육정책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며 각종 산불, 들불 등 야지 화재에 대한 진압 경험이 많은 호주의 소방서를 방문하여 소방·안전 정책에 대해 확인하고 우리 시의 소방·안전 분야에 적용 방안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국외연수 장소인 호주 퀸즐랜드주의 경우 2019년 세종시교육청과 주 노동부 사이의 MOU가 체결되어 관내 학생들의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세종시와 퀸즐랜드 주도인 브리즈번은 스마트시티 관련하여 2019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국외연수 국가 및 장소로 선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호주를 선정하고 우리 세종시와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퀸즐랜드주의 브리즈번을 선정한 것입니다.

공무국외활동은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1일 차 인천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호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2~6일 차는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 위치한 전문기술대학인 테입(TAFE)과 호주 자동차협회 퀸즐랜드지부인 MTAQ를 방문하고 또 퀸즐랜드주 교육부와 어학연수 기관이면서 바리스타 자격취득 기관인 브라운즈(Browns) 영어학교, 퀸즐랜드주 소방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문 기관 중 교육안전위원회는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을 방문하여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의 적용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며 외유성 일정은 지양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활동을 통해 기술과 관련된 실무 중심의 글로벌 우수 직업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호주의 직업교육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의 교육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10월경 하이텍고와 세종여고 학생 5명을 퀸즐랜드주 테입에서 6주간 현장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방문은 현장학습의 사전답사 성향도 띠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첨단 직무기술 및 해외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퀸즐랜드주 소방서는 소방 및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호주의 특성상 산불과 들불 진압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곳으로 소방·안전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우수한 점을 우리 시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국외활동 의원 1인당 경비는 298만 원이 산출되었으나 배정된 예산액이 1인당 250만 원 한도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공무원 여비규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거수)

000 위원님.

○ 위원 테입이라고도 얘기하고 타페라고도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 기관들 섭외는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 교안위 쿼즐랜드주 정부 한국 대표부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된 것으로 있습니다.

○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000 위원 거수)

0 위원님.

○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장 인원은 소속 의원 전원 다 출장 가시는 건가요?

○ 교안위 네, 참석하십니다.

○ 위원 궁금한데 전에 혹시 같이 동행하신 적 있으신가요?

○ 교안위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지 않고요.

직원들 가고 있습니다.

○ 위원 궁금한 게 가시면 주로 어떤, 다녀오신 이후에 보고서 작성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 교안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의원님마다 다 작성하시나요?

○ 교안위 의원님마다 소관별로 쓰고 각 기관 현황도 저희가 사전에 파악하지만 가서 듣고 보고 한 거를 다 적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저도 한 말씀 여쭙볼까요?

교육청 관련인데 보면 출장 목적이 우수한 직업교육 정책과 선진국의 안전관리 정책 벤치마킹이라고 하셨는데 가시는 분 중에 의원님들 제외한 나머지 직원분 8명이세요.

그중에 교육청 같은 경우 조직예산과장이 포함되었어요.

조직예산과장이 포함되었는데 뭐랄까, 이쪽 출장 목적과 좀 그렇지 않나요?

○ 교안위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예산과지만 담당 부서가 여러 개 있었고요.

담당 부서가 있고 예산 관련도 어차피 가면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시책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업무 연관성 없는 데는 다 빼고 연관성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을 받았습시다.

○ 위원장 그렇게 하고 여섯 분이 가시고 직원이 8명 가시는 걸로 돼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외부에서 보기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지 않느냐. 의원님들은 여덟 분이 가시는데 직원이 8명이나 따라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도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교안위 저희도 언론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분은 시청과 교육청에서 업무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분들도 어차피 가서 현장 보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000 위원 거수)

000 위원님.

○위원 심사 기준에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7일간 하는데 토요일에는 기타 활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개인 활동이어서 이 심사 기준에 맞추어서 뭔가 1개 기관 이상 방문을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간사 교안위 쪽에 토요일 보시면 거의 대부분 브리즈번 도착이 23시 35분, 브리즈번 출발이 24시, 거의 호텔을 쓰지 않고 굉장히 절약적으로 한 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호주라는 데가 비행기 편이 그렇게 자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편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보시면 선진국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방문하고 싶어도 문을 안 열어서.

○교안위 저희도 짤 때 그걸 염두에 뒀습니다.

○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토요일 기관 방문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고 그래서 기타활동으로 했는데 그럼 21일은 브리즈번에 머물고 또 그러면서 22일 하루 그냥…….

○간사 비행기가 오는 중입니다.

보시면 브리즈번에서 24시에 출발합니다, 밤 12시에.

그래서 비행기가 오는 중이고 9시간 걸리니까 인천공항 도착하면 10시 30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그러면 20일 금요일 이후에는 토요일 그 시간까지 사실은 공백이잖아요.

특별한 게 없잖아요?

○교안위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짜서 같이 공동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공동행사요?

○교안위 공동으로 같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같이 일정을 짤 계획입니다.

토요일까지 일정을 짜기가 그쪽 주 정부 대표부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일정이 안 나와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짜기로 했습니다, 그 토요일 일정은.

○위원장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저도 여기 위원님들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위원장으로 계셨던 000 위원님이 계시지만 전에는 사실 이렇게 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심도 있게 논의되고 이런저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 것은 거듭 말씀

드리지만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이 위원회가 민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고는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고 또 고민하시는 거고 또 정말 꼼꼼히 따지는 겁니다.

집행부나 또 여기 의회에서 나오신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요.

이게 다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와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해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까요?

○ 위원장 네, 000 위원님.

○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 제가 제척 사유가 돼서 나갔다 들어왔습니다만 의원으로서 이번에 허가해 주시면 벤치마킹 잘 해서 세종시에 접목시켜서 의정활동 하는 데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사실 아까 논의 과정에서 제가 교육안전위원회 설명 때문에 넘어간 일이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더 질의하실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도, 아까는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그랬거든요.

말씀해 주시지요.

(대답 없음)

○ 위원 교육안전위원회는 토요일 계획을 워크숍을 한다든지, 위원님하고 정책담당자들하고 만남을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 생각인데 호주는 원격교육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다문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문화 학생들 직업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위원님들도 물론 보시겠지만 공무원들도 그 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교안위 사전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 위원 기명으로 하는 건 그렇네요.

무기명으로 해야 좋지 않을까.

○ 위원 맞아요.

이 심사의견서를 무기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위원 회의 규칙에 그런 게 있습니까?

○ 위원장 그게 있습니까?

○ 주무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위원 기명으로 하든 무기명으로 하든 상관없으면 무기명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미 이름 적어 버렸으니까 다시 복사해서 주시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그러면 아무튼 그게 관련 조례에는 기명이라든가 무기명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되면 무기명으로 작성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 간사 괜찮습니다.

○ 위원장 무기명으로 작성해 주셔도…….

○ 위원 저는 교안위 것만 주시면 돼요.

○ 위원 교안위 거는 아니지, 산건위 거.

○ 위원 산건위 것만.

○ 위원장 예를 들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 의원님 두 분도 계시잖아요, 공무원도 계시고. 그런 부분은 조금…….

○ 위원 아니,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녹화도 하고 인터넷에 배포도 하는 상황인데 무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 위원 그렇지요, 기명으로 해야 맞아요.

○ 위원 사실 공무원 징계 같은 거 할 때는 무기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담되는 디시전(decision)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판단을 존중하지만 위원들 한 분, 한 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생각해서서 기명으로 할 수도 있고 무기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나중에 사무처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시지요.

○ 간사 일단 이 심사의견서는 공개 사항은 아닙니다.

혹시 성함이 들어가도 공개되는 게 아니고 발언을 녹취, 지금 속기사가 녹취하고 있거든요.

치고 있는데 그 내용만 공개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그리고 심사 결과를 보면 “허가” “불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허가, 불허 외에 예를 들면 아까 ‘위원회가 가는 공무원이 8명이다. 너무 많다. 일부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보면 허가냐 불허냐 이렇게 딱 못 박으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개선안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허가냐 불허냐.

○ 위원 조건부 허가…….

○ 위원 제 생각에는 만약에, 불허가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지요?

○ 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다수결로 해서 만약에 불허가 나면 재심의 안 됩니까?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사 의견에 “허가” 하면 허가와 관련된 내용이, 보완할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 “불허” 하면 불허에 대해서 이유가 들어가면 그걸 보완해서 다시 심의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40일이라는 기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불허를 했을 경우 다시 검토해서 위원회에 상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간사**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사실상 비행기 티켓 같은 것은 60일 이전에 해야 하고 만약에 불허가 되면 비행기 티켓 그런 거의 반납 또는 환불에 대한 차지(charge)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반 관광 목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해당 기관에 우리 가는 사람들 명단이나 통보를 했거든요.

그쪽에서도 우리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여기 심사의견서에 기록해 주시고 다음에 개선할 사항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제가 여쭙보는 건데 지금 여기에 공무원들도 같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위원들끼리 협의는 못 하느냐 이거지요.

○ **위원** 위원님끼리요?

○ **위원장** 네.

○ **위원** 위원님들끼리 사전 협의를 통해서 “우리는 6명이 브리즈번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이미 그분들…….

○ **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

지금 회의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회의를 해 보니까 이러이런 부분은 이렇다.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한번 거치는 건 어떠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느냐는 얘기지요.

○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허가 할 때와 조건부 허가라는 걸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될지는 판단해 봐야겠습니다만 조건부 허가란 뭐냐 하면 재심사까지는 안 거치더라도 “그 일부 내용 중에서 이렇게 수정이 필요하니까 이걸 전제로 했을 때는 허가해 주겠다.” 이렇게 해 주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허가 심의하실 때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오늘 그것까지 다 결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위원** 오늘은 점심시간도 됐고 했으니까…….

○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점심 먹고 오후에 하시자는 말씀이신지…….

○ **위원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 **위원** 조금 늦더라도 오늘 진행을 다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안은 재적 위원 아홉 분 중 여

섯 분이 참석하시어 다섯 분이 허가 승인해 주셨고 한 분이 불허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번째 안건인데요.

교육안전위원회 국외출장계획안은 재적 위원 아홉 분 중 여섯 분이 참석하시어 다섯 분이 허가 승인해 주셨고 한 분이 불허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종시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알찬 공무국외출장이 되도록 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실 있는 출장 성과를 거두시기를 희망하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9분 산회)
